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1월 24일(금)
--(윤력 12월 25일)--
Пятница
24 января 2025 г.
№ 3 (12120)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월 25일은 러시아 대학생의 날이다. 사할린국립대학교 학생들.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유즈노사할린스크 60km의 도로에 가로등 설치

지난해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시찰 중 지시사항 시행의 일환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 60km의 도로에 새로운 가로등이 설치되었다.

시 사업국의 정보에 따르면 가로등은 노워알렉산드롭스크, 블라디미로브카, 베레즈냐키, 스타로루스코예, 클류치, 호무토워, 리스트웨니츠노예 등 계획 구역 및 마을들의 거리에 설치되었다. 다자녀 가족들에게 배당된 토지가 있는 새로운 달네에 마을에도 가로등 장비를 설치하고, 연결하는 작업이 완료되었다. 올해도 거리 가로등 개선에 따른 사업은 계속되며, 2025년11월까지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중국, <러시아산 제품> 축제-박람회 개최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의 주도인 선양시에서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러시아산 제품> 연례 축제-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이 박람회에 러시아 43개 지역에서 생산된 러시아산 제품 120개 이상의 품목들을 선보였다. 러시아 제품들은 <러시아산 제품> 공식 상점에서 판매되며, 행사장에서는 시식 코너도 조성되고, 사업 협상 공간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러시아 민속 예술단의 공연, 중국어 더빙 러시아 애니메이션 상영, 가상 현실 체험장, 러시아 비디오 게임장, VK의 '단순히' 창작 플랫폼에서 디지털 예술 전시회도 열렸다.

사할린주 정부 홍보실이 전하는 바로는 행사에 사할린의 3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크라스니카(클로포브카) 열매로 만든 음료를 제공하는 '사할리노프'회사, 일본의 해초분말을 생산하는 '지비아-파름 사할린', 바다표범의 기름으로 만든 생물학적 첨가물을 생산하는 '카르디날'수산업체가 제품들을 선보였다.

사할린주, 응급처치 대규모 훈련 시작

2024년 연말에 러시아 연방 전 행정자치체들에서 시작된 응급처치 훈련에 따른 수업이 사할린주에서 시작되었다. 거의 2개월간에 약 1만 명이 이 과정을 수료했다. 수업은 사할린주 지방에서는 중앙구 역병원들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는 응급구조 및 재난의학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훈련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실시되고 있으며, 사할린주는 이 기회를 가장 먼저 실시한 지역들 중 하나다.

수강생과 전문가들의 편의를 위해 훈련 그룹은 20명-25명으로 구성된다.

이 훈련에 누구나 등록할 수 있으며 8시간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응급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한다.

친애하는 대학생 여러분!

1월 25일 대학생의 날을 여러분에게 축하합니다!

러시아 대학생의 날은 청춘과 원대한 희망과 미래 계획의 상징입니다.

사할린 지역의 대학생들이 현대적인 고품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사할린 지역을 위해서나, 우리의 위대한 조국을 위해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사할린테크 대학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지역의 우수기업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대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 현실적인 과제 해결로 자신의 실력을 시험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센터와 첨단공업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우리의 중등교육과 고등교육기관에서 배운 지식들로 청년들의 재능과 실력을 실현시키며, 사할린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러시아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생 여러분에게 학업에서 새로운 성취와 창작의 기쁨과 건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대학생의 날을 축하합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 "극동 및 시베리아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대한 책임 잊지 말아야"

1월 17일(금) -18일(토) 이틀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연방 부총리이자 극동 연방 관구 러시아 연방 대통령 전권대표인 유리 트루트네브가 2024년 극동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업무 총결산 및 2025년(1월 공청회)의 우선적 과제들에 대한 출장회의를 진행했다.

"우리는 지역의 수장들과 극동 및 북극 개발부 대표와 개발연구소들의 대표들과 만나 우리가 올바르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항상 우리의 업무가 현재 국가적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도전과 상태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모이고 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께 극동 및 북극 지역에 러시아 연방 국민 1,050만 명의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가 우리의 책임을 결코 잊지 말아 주시길 부탁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에는 일을 단순히 잘한다가 아니라 아주 잘해야 한다."며 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택건설, 투자환경, 극동과 북극 지역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법적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하고 북해 항로의

발전을 분석해보았다.

출장회의 둘째 날에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는 "오늘은 우리 지역의 날이다.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어떤 상태인지, 향후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분석할 것이다. 우리는 평시와 군사작전 수행 시에 지역 수장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오늘날 여러분의 임무는 자신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때론 위협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말하건데 연방 정부는 지역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부총리는 지난해 총결산에 따른 일련의 지표들로 회의 참석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고정자산에 투자 성장률에 따른 극동 연방관구의 상위 4개 지역으로는 하바롭스크 변경, 사할린주, 아무르주, 추코트카 변경이 올랐고, 산업 생산 성장률에 따라 야쿠치야, 하바롭스크변경, 부랴치야, 연해주가 상위 4위에 올랐다.

(3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15,49 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주한인협회, 특별법에 관한 설명회 개최

지난 18일(토) 오후 12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약 250명이 모인 가운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주최자로 나선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는 1월 15일 주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이 설명회로 소집한다는 광고를 했다. 설명회에 대한민국의 공식 대표들이 참석한다는 광고에 많은 동포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부모사망 2세를 비롯해 영주귀국 대상자 확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동포들의 관심이 높았다.



주요 발표는 온라인으로 KIN(지구촌동포연대) 최상구 대표가 하였다. 그는 이날 사할린주한인협회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상기시키고, 지구촌동포연대가 2004년부터 사할린 동포 문제해결을 위해 사할린 동포들과 함께 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2011년 사할린 묘지 조사 이후 킨 활동을 시작한 최상구 대표는 그후 사할린한인협회와 이산가족회가 한명숙 전 총리와 면담, 2013년 일본 방문, 한국의 국회의원들 면담에도 함께 하였다는 것도 이야기했다.

사실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을 제작하여 이 달력을 전하기 위해 사할린을 거의 해마다 찾아온 최 대표는 그 누구보다 사할린한인문제를 잘 알고 있다.

"사할린 동포사회의 전체적인 의견을 잘 모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부모사망 2세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영주귀국 과정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정확한 자료도 필요합니다. 오늘 모임을 통해 의견을 잘 모아 한국의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KIN도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최상구 대표는 표명했다.

이날 설명회에 대한민국의 공식 대표자가 참석하지 않았지만 참석자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설명회에서는 부모가 사망한 사할린동포 2세를 포함해 영주귀국 대상자 확대를 요구하고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자는 의견을 모아 결의안을 작성하고, 한국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또한 사할린동포특별법 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도 결성하기로 했다.

(본사 기자)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한인연합회, 결산선거회의 개최 신임 회장으로 고영순 마카로브 향토박물관 관장 선출

지난 18일(토) 오전 11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도사아프' 공공국가조직 회의실에서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할린한인연합회의 결산선거회의가 진행되었다. 연초부터 회의는 공고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회원 총 113명 중 88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연합회에는 단체회원 - 9개 단체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가장 큰 두 단체 -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중환,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천영근 -을 비롯해 상트페테르부르크 사할린한인회, 사할린의 스미르니흐·포로나이스크·워스토크·마카로브·돌린스크·코르사코브 지방한인단체)와 일반인 104명이 가입했다.

결산선거회의에 모든 회원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사할린한인단체를 최영구 연합회 운영위원이 대표했다. 또한 이 회의에 모스크바 사할린한인회 김태성 회장이 초대되어 참석했다.

우선 연합회 사업보고가 있었고, 보고를 한 연합회 유영희(유에니) 부회장이 사할린한인연합회가 공식적으로 2003년 10월에 등록되었다며 그동안 사할린한인 2세 (부모사망 2세 영주귀국대상자로 확대하려는 사업)를 위한 사업, 1세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지역 알아가기 활동, 러시아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할린 출신 위한 단합 활동, 한민족 문화 보급 활동, '라면'축제 개최 사업 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연합회는 2세 문제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10월에 한국 재외동포청에 대표단을 보내 호소문을 전했다.(자세한 기사 본지 게재). 작년 12월에 연합회 대표들은 영주귀국 사업 설명회로 사할린에 온 재외동포청·대한적십자사 대표단과 간담회에 초대받아 재삼 사할린한인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대표단의 부탁으로 부모사망 2세 중 몇 명이 영주귀국을 원하는지를 대략 정보를 모아봤다. 사할린에 거주하는 한인만 아니라 러시아 여러 지역(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 극동지역 등)에 거주하는 사할린 출신을 합한 수치였다.

유 부회장은 연합회는 어느 기관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오로지 회비와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모든 계획과 사업을 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의 재정 검토를 오진하 감사가 하였다. 그는 보고를 하고 결론으로 아무 위반이 없다고 전했다.

사할린한인연합회의 김홍지 회장이 중병으로 회장에서 사임을 한다고 12월에 표명하여 이날 회장 선거와 운영위 위원 선거가 있었다.

다수가결로(88명 중 81찬표) 마카로브 향토박물관 관장 고영순 씨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고 회장은 앞으로도 연합회가 해왔던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운영위 위원 17명을 선출하고 연합회 정관에 필요한 변경사항을 채택했다.

중요한 것은 이날 연합회 산하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에 러시아·CIS지역의 사할린한인단체 대표들을 유치하고, 한국에 제기할 문제들을 한 목소리로 전할 예정이다. 이 문제 담당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최영구 대표가 맡아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회 측은 신임 회장 선출 소식을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를 비롯해 재외동포청, 대한적십자사 등에 알리기로 했다.

(취재: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일본 센터' 사할린에서 활동 중지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연방에서 진행되는 개혁으로 기술적 협력에 따른 일본센터의 활동에 대한 러·일 양국 양해각서의 효력을 종료했다. 센터 중 하나가 사할린에서 운영되었었다. 해당 조치를 러시아 연방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법률정보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2000년 9월에 일본 도쿄와 2003년 6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체결된 양해각서에 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러시아 연방 지역에서 일본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결정이 러시아 외교부의 제안으로 채택되어 총리는 양국 양해각서 효력 중지에 대해 일본 측에 통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일본센터'는 2000년에 러시아에 설립되어 러시아의 전문가들을 교육해왔다. 세미나와 강연을 개최하고, 러시아 연방 국민경제를 위한 인재양성을 지원하며, 일본에서 견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일본어 강좌 조성 등 기타 활동들을 해왔다.

이 센터의 활동에 일본 정부가 러시아 주재 일본대사관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왔다. 이 센터는 구조적으로 모스크바 센터를(모스크바 국립대 구역 내) 중심, 상트페테르부르크, 니즈니 노브고로드,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에 지부를 두고 있었다.

"Японский центр" прекратит свою работу на Сахалин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прекратило действие двусторонних российско-японских документов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японских центров по техническому содействию проводимым в РФ реформам, один из которых работал на Сахалин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РФ Михаила Мишустина опубликовано на официальном портале прав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Речь идет о меморандумах, подписанных в Токио в сентябре 2000 года 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июне 2003 года. Они регулировали создание 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е японских центр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РФ.

Данное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по предложению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Ему же поручено уведомить японскую сторону о прекращении действия меморандумов.

"Японские центры" были созданы в России в 2000 году. Организация занималась обучением россий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ровела семинары и лекции, оказывала помощь в подготовке кадров для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Ф, предоставляла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йти стажировку в Японии, организовывала курсы японского языка и так далее.

Деятельность таких центров финансировалась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Японии при посредничестве посольства страны в России. В структуру организации входили головной офис в Москв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МГУ) и филиалы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Нижнем Новгороде, Хабаровске, Владивостоке и на Сахалине.

<2025사할린 얼음>겨울 낚시축제, 2월 22일 개최

2월 22일 <2025사할린 얼음> 겨울 아마추어 낚시축제가 전례대로 돌린스크 지역 나이바 강가에서 진행된다고 낚시축제 조직위가 전했다.

특별 참가신청은 2월 10일부터 시작되며, 2월 21일 현지 시간으로 19시까지 접수한다. 참가신청서는 공식 사흐아이스 루(sakhice.ru) 사이트에서 접수하며, 전화(8 (4242) 722-576)로 평일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축제 현장에서 등록 시 2월 22일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까지 할 수 있다(단, 공석이 있을 경우에).

<2025사할린 얼음> 낚시축제에 대한 프로그램과 공지사항은 공식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텔레그램 채널에서 신규 공지사항을 찾아볼 수 있다.

Фестиваль зимней рыбалки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 2025» пройдет 22 февраля

Традиционный фестиваль любительской зимней рыбалки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 2025» пройдет 22 февраля на реке Найба в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сообщ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Регистрация команд стартует с 10 февраля и продлится до 19:00 по местному времени 21 февраля. Прием заявок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на официаль-

ном сайте sakhice.ru, а также с 10:00 до 18:00 в рабочие дни по номеру: 8 (4242) 722-576. На месте проведения регистрация будет доступна с 07:30 до 09:30 22 февраля (при наличии свободных секторов).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программой и регламентом фестиваля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 2025»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За обновлениями можно следить в Telegram-канале.

사할린의 두 개 극장, <러시아 졸로토이 폰드> 상위 300위에 진입

러시아 극장활동연맹이 <러시아 연극공연 졸로토이(황금)폰드>경연에 우승을 두고 경쟁할 공연 목록을 발표했다. 이에 체호브센터와 사할린 인형극장의 공연이 순위에 올랐다고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부의 노나 라브리크 장관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했다.

심사위원들은 러시아 연방 극장활동연맹 지부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연에 출품된 모든 연극 공연물의 녹화본을 시청하고 검토했다. 약 400개가 넘는 극장들에서 1000개의 공연 작품들이 제출된 가운데 첫 예선 결과 전문가들이 300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우승을 향한 경쟁 목록에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사할린 인형극장 <미친 돈(감독: 이고리 카자코브)>(16+), 체호브 센터의 <에셀론(감독:예베게니 지민)>(12+)이 올라갔다.

러시아 연방 극장활동연맹은 2026년에 창설 150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할 예정인 가운데 '러시아 연극공연 졸로토이 폰드'창설 기념해에 맞추어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경연대회에 전국 각 지역들에서 전문적인 예술단들 - 칼리닌그라드에 서부터 캄차트카 변경까지-이 다양한 장르들에서 연극공연에 참가했다. 경연 기획의 조건으로 연극공연은 전통적인 정신적, 윤리적 가치를 반영하고, 러시아 전체적인 문화 코드를 형성해야 한다. 전문 심사위원들은 <러시아 연극공연 졸로토이(황금)폰드>에 100개의 우승 공연을 선정하고 이후 러시아 연방 극장활동연맹은 선정된 극장 공연을 티비(TV) 방송으로 제작해 방영할 계획이다.

(8면에 계속)

사할린 내 일본 유산 사진전 <화태에서 사할린, 역사 공간 관광> 성료

한양대학교 BK21 일본학교육연구팀 소속 이준영 연구원의 사진전 <화태에서 사할린, 역사 공간 관광>이 2025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이 전시회는 일본 통치 시절의 사할린 남부 근대 유산을 현재의 시점에서 재조명한 사진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전시회는 지난 여름에 촬영한 작품과 100년 전 사진 자료를 함께 배치하여 시간의 흐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연출되었다. 대학교 교원 및 대학생, 그리고 안산시 고항마을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들이 전시회를 방문해 사할린의 과거와 현재를 마주할 수 있었다.

특히, 마카로브에서의 촬영 에피소드는 이번 전시회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촬영 당시 한 주민은 "더 이상 남은 것이 없

다."며 우려했지만, 돌무더기가 남아 있는 공터를 안내해 주었다.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 '존재하지 않는 것'의 의미를 재구성하며, 사진으로 표현했다. 전시회는 이러한 사진을 통해 관람자들이 사할린을 둘러싼 기억의 층위를 넘나드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전시회는 연구회(사할린 내 '일본유산'의 현주소: 유즈노사할린스크와 마카로브를 중심으로)와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한양대학교 일본학과 학과장 사토 타쿠마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홋카이도대학교 파이차제 스베틀라나 교수와 한양대학교 이준영 연구원의 발표로 이어졌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나카무라 야에 교수와 홋카이도교육대학교 히라이 타케후미 교수가 참여하여 의미 있는 논의를 나눴다. 한



사진설명: 왼쪽부터 사토 타쿠마(한양대), 파이차제 스베틀라나(홋카이도대), 이준영(한양대), 나카무라 야에(한국외국어대학교), 여지연(홋카이도대)

국, 일본, 러시아의 역사가 공존하는 사할린이라는 주제로 각국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며 이번 전시회와 연구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한양대에서 자료 제공)

아쿠타가와상 작가 이회성 씨 타계, 향년 89세

자신의 뿌리를 바탕으로 분단된 조선반도의 민족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다수 저술한 아쿠타가와상 작가 이회성 씨가 지난 5일 타계했다. 향년 89세였다.

이 작가는 1935년, 당시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러시아 사할린(가라후토)에서 태어났다. 전후에는 홋카이도(道) 삿포로시(市)로 이주해 와세다 대학 문학과를 졸업한 후 조선신보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문학계에는 1969년, '또다시 이 길'로 군소신문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그는 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일본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아쿠타가와상(芥川賞)'을 거머쥐었다. 이 상은 잡지에 발표된 신인 작가의 중·단편 중 가장 우수한 작품에 주어진다. 이 작가는 '다들이질하는 여인'으로 1972년, 제66회 아쿠타가와상을 받았는데,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에서 보낸 유년 시절과 부모에 대한 삶

을 특유의 문체로 풀어냈다.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민족을 뜻하는 '디아스포라'와 함께 어딘가 자연스럽게 않은 일본어는 오히려 그만의 정체성이 됐다.

그 후에도 자신의 뿌리를 바탕으로 분단된 조선반도의 민족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다수 저술해, 1994년에는 종전 후 급격한 사회 변화에 휩쓸린 사람들을 그린 '백 년 동안의 나그네'로 노마문예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김지하 시인의 작품집 '불귀'를 번역하는가 하면 1987년에는 르포르타주 '사할린으로의 여행'에서 고향에 대한 사랑을 내비쳤다. 한편 이 작가는 1998년 10월,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회성 씨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6부작 장편 '지상생활자'를 2020년에 완성하는 등 80세를 넘어서도 집필활동을 계속했다.



지난 5일 타계한 이회성 작가의 모습. (출처 : 시모노세키 한국교육원) 2011.11.08/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건강 악화로 도쿄의 병원에 입원해 1월 5일에 오연성 폐렴으로 타계했다.

(일본, 러시아, 한국 매체 인용)

본사 편집부로부터: 사할린 출신 이회성 소설가는 사할린을 여러번 다녀갔다. 새고려신문 기자도 그를 취재했다.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 "극동 및 시베리아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대한 책임 잊지 말아야"

(1편의 계속)

지난해 극동 연방관구에서 주택 건설의 증가율은 러시아 평균 수치를 앞질러 11.9%에 해당했다. 극동 연방관구에는 470만㎡ 면적의 주택이 건설되었고, 주택 건설 증가율에 따른 상위 지역들에는 연해주, 야쿠치야, 부랴치야, 아무르주가 순위에 올랐다.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는 "극동 주택담보대출 연장에 따른 대통령의 정책은 이 과정에 적잖은 기여를 했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은행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자금을 배정할 계획이다. 현재 자금 규모를 확인하는 중이며, 이 문제는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되어야 한다. 극동 주택담보대출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며, 대통령의 모든 지시대로 이 과제는 실현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4년 11개월간 극동지역 역사상 두 번째로 이주민이 1만4천 명 증가했고, 극동 연방관구 11개 지역 중 8개 지역에 긍정적인 이주민의 흐름이 나타났다.

극동지역 주민들은 토지 무상이용 제공에 따른 '헥타르' 프로그램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 부총리는 이 프로그램으로 획득한 토지를 조밀하게 배치하기 위한 제반시설 건설의 속도가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우리 극동 땅의 개척이다. 헥타르를 가진 사람은 그 땅을 돌보기 시작하고, 주택을

건설하며, 그 땅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다. 이는 우리 사업이 바라는 결과 중 하나다."라고 강조하고, 극동개발부에 '극동헥타르' 마을들의 제반시설 구축 및 수행 과정에 따라 취한 조치들에 대해 보고하고, 상황을 분석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11개 극동지역의 수장 모두가 2024년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업무 총결 진행 및 2025년 우선적 과제들에 대해 보고했다.

회의에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보고한 바로는 2024년 사할린 지역 총생산(GRP) 규모는 1조 8천억 루블리에 달하며, 제조업 성장률은 116%, 석탄산업은 113%, 무역은 112%, 건설업은 105%의 증가율이 기록되었다. 투자환경 상태에 따른 국가 순위에서 사할린주는 극동 연방관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4위를 차지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코르사코브 항구의 수력기술시설 재건 착수, 쿠릴열도에 생선살과 기름 생산에 따른 공장 건설 및 정밀 생산공공에 따른 두 개 공장 건설, 농산업 단지 건설, 무엇보다 사할린 석유가스산업단지 건설 등 지역을 위한 일련의 전략적 기획들을 강조했다.

또한 '월나(파도) 수상스포츠 종목 센터, '사할린 알라이드'교육센터, 학교 및 유치원들의 운영 시작, IT산업을 위한 '21 학교' 인

재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보리스 슈킨 연극대학 분교를 설립, 국립 태평양 의과대학 분교 설립, 극동 의료클러스터와 핵의학센터의 운영을 시작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현대적인 외래진료소가 완공되었고, 5개의 외래진료소가 건설되고 있으며, 2개 외래진료소를 설계하는 중이다.

2025년에 핵심 기획들 중에는 23km의 석탄 수송로를 통한 기획 수송량 달성, 2차 석유가스산업단지 개발 건설, 유즈노사할린스크 서부 외곽도로 건설, 1차 물류센터 건설,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에 이착륙 활주로 건설이 있고, 주택 50만㎡ 건설, '사할린테크' 캠퍼스 대학생 도시 완공 등이 있다.

이번 출장회의에서는 그외 군사-애국교육 문제를 논의하고, 특수군사작전 참전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추가 사회적 보장과 혜택 제공 문제, 해방 지역에 복구 작업, '애국적' 선도개발지역의 일환으로 기업 지원, 대조국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준비도 논의했다.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극동 및 북극지역 1천50만 주민의 생활과 복지 및 광대한 지역들의 개발이 우리 공동 사업의 질에 달려 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신뢰하고, 대통령을 신뢰해야 한다."며 이틀간의 회의를 요약 마무리했다.

(사할린주정부 자료에서)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설날 떡국 / 정연복

설날 아침 맛있는 떡국 한 그릇을 먹으며
당달아 나이도 한 살 더 먹는다

나무로 치자면 나이에 한 줄이 더 그어지는 셈이다.
그래, 올해부터는 한 그루 나무처럼 살자

하루하루 전혀 조금함 없이 살면서도
철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이

나이가 들어간다고 겁먹거나 허둥대지 말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만 좋은 사람 쪽으로 변화하면서
내가 먹은 나이에 어울리는 모양으로 살도록 하자.

"기억을 더듬어 제가 이 걸 먹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먹었지요. 그것도 아주 많이. 인터넷을 뒤져보면 알래스카 등지에서 주로 잡힌다는 데, 러시아 사할린에서



도 저는 그걸 분명히 보았고, 잡았다기보다는 주웠고, 그걸 데쳐서 먹었거든요. 사할린 체류 시절, 그 때 제 낚시 스승이신 이춘봉 사부님께서 그 날 따라 늦은 밤,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하시더라고요. 신속히 저는 차량에 탑승했고, 낚시를 가는 마음이 늘 비슷하지만 그 날 따라 비장한 마음이었습니다. 표지판을 보니 곰이 출몰할 수 있다는 숲 속 도로를 거쳐, 비포장 도로는 기본이며, 한참을 달려 새벽녘 우리는 결국 인기척 하나 없는, 깜깜한 해안가에 도착했습니다. 아니야 해변, 세상에, 이런 바다가 다 있나, 신기할 정도였지요. 한 며칠 파도가 많이 치는 바람에 바닷속에 숨어사는 괴이한 조개들이 물로 많이 올라왔을 거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 서둘러 온 거지요. 저는 달리는 차 안에서 이 소식을 들었고, 세상에나 마상에나, 징그럽게도 생긴 괴이한 조개들이 모래 사장에 떠밀려 온 걸 본 거지요. 바닷물은 이제 밀물 때. 물은 슬슬 다시 차고 있었고, 저는 큼직한 통 두 개를 양손에 쥐어든 채 이제 모래사장을 뛰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춘봉 사부님은 운전을 하며 헤드라이트를 제 쪽으로 켜 채, 느리지 않은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고요. 일단 저는 미친듯이 그 조개들을 주웠습니다. 바닷물이 좀 더 들어오면 차량이 물에 잠길새라 서둘러야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조개들이 정말이지 대단한 조개들이었더라고요. 조개들 중 가장 비싸고 맛있다는 코끼리조개! 자연산이니 값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비싼 조개들이 사할린에서는 널려 있더라고요. 속소로 와서 몇 날 며칠 그 보물 같은 생명체들을 물론 먹었지요. 몸보신 제대로 했습니다. 모두 싱싱하게 살아 있어, 회로도 먹고, 살짝 데쳐서도 먹었지요. 그런데 말이죠. 코끼리 조개 껍질의 테두리가 나이트라고 하길래 신기한 마음에 한 번 세어봤는데요. 어떤 건 3백 년도 더 된 코끼리 조개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떡국 나이트보다 훨씬 오래 산, 그야말로 영물을 먹어버린 셈이니, 잠시 난감했던 기억입니다. 처음 본 괴상하게 생긴 코끼리 조개들이 펼쳐진 어두웠던 바닷가. 사할린은 연어와 가자미, 조개들의 천국이죠. 떡국들 드실텐데요. 올해는 어쩐지 그 때 그 조개를 곁들인 떡국이 간절해지네요. 떡국, 맛있게들 드시고, 올해 역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Новым председателем АСК стала Ко Ен Сун

18 января в 11 часов дня состоялось отчетно-выборное собрание НКО Ассоц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далее АСК). Из 113 членов организации (9 членов-организаций,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две крупны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6 районных, а также Общ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и 104 человека – физические лица) на собран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о 88. В работе собрания приняли также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осквы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АСК была юридически создана в октябре 2023 г. На собрании был заслушан отчет о проделанной работе (мероприятия для 2-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и волонтер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 поддержке 1-го поколения,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 включению в список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на выезд на ПМЖ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2-поколения, родители которых умерли, не получив должную поддержку со сторон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абота по сохранению и развитию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т.д.). Как отметила зам. председателя АСК Ю Е Ни, была проделана огромная работа, причем без чьей-либо финан-

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Организация существует на членские взносы и пожертвования членов общества.

Для продвижения внесения изменений в Спец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делегация АСК в октябре 2024 г. побывала с визитом в Агентстве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где передала Обращение от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связи с болезнью председатель АСК Ким Хон Ди попросил о сложении полномочий. На собрании новым председателем избрана Ко Ен Сун (Светлана Яковлевна), директор Макаровск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За ее плечами большой опыт работы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ях. Было также избрано правление в составе 17 человек. В организации существует молодежный сектор.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создать Консультативный совет, в который должны войт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НГ и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Он создается для выработки и представления единого мнения в различные структуры. Возглавит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Че Ен Гу.

Виктория Бя

РООСК провела разъяснительное собрание

18 января в 12.00 в Сахалинском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ошло разъяснительное собрание по вопросу разработки основных этапов мер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х. Его организатором стала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На собран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о около 250 человек, сообщ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С основным докладом в режим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выступ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некоммер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И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Че Сан Гу. Он рассказал о продолжитель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корей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Сахалина по вопросам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Резолюцию собрания было решено направить в Парлам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ыло принято также решение по созданию Комитета по Специальному закону о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х.

Наш корр.

Остров далекий и близкий: выставка, посвящённая Сахалину

С 9 по 11 января, в кампусе ЭРИКА университета Ханьян, который расположен в г. Ансан (Южная Корея), прошла выставка фотографий 4-х городов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рсакова, Макарова и Поронайска. Фотографии были сделаны в августе 2024 г. в рамках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проекта по сохранению исторического наследия Сахалина. Исследователь и фотограф И Джун Ён, используя старые японские открытки, сфотографировал современный Сахалинский ландшафт, сохраняющий Японское наследие.

Хотя выставка длилась всего два дня и проходила в сильный мороз, на неё пришло немало посетителей. Среди них были корейские студенты 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несколько японских ученых, а также более 20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Ансан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хян Маиль.

После осмотра выставки посетителям предложили заполнить анкету о сохранени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наследия Сахалина и о пользе проведения подоб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анкетах и устных отзывах гости благодарили организаторов за возможность узнать много нового о местах, знакомых с детства. «Я знала об этих памятниках, но не знала, когда и как они были созданы», — отметила одна из жительниц Кохян Маиль.

Многие посетители также выразили мнение, что проект следует продолжать и не ограничивать только четырьмя городами — необходимо показать и другие места на острове. Корейские и японские гости, мало знавшие о Сахалине до выставки,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воём отметили в анкетах, что хотели бы узнать больше о его истории, а также посетить остров, если будет такая возможность.

Кроме того, к фотовыставке был приурочен научный семинар под названием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японского наследия" на Сахалине: с акцентом 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Макаров». На семинаре после вступительного слова заведующего кафедрой япон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Ханья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ато Такума выступили профессор Пайчадзе Светлана из Хоккайд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И Джун Ён из Ханья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Затем дискуссия продолжилась с участием профессора Накамура Яэ из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Кореи и профессора Хири Такэфуми из Хоккайдск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о просьбе редакции материал подготовлен профессором Светланой Пайчадзе)



Ден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рошел в Политехническом колледже

«Ден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рошел 22 января в Политехническом колледже САХГУ. Более 150 студентов смогл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по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или Администрация колледжа в лице Шарова Сергея Сергеевича и председателя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АХАЛИН ХАНИН» Чон Алексея Анатольевича.

Участники Творче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Хангыль» (Пе Анжела) и команда Ассоциации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Остров»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Ан Сухаги подготовили площадки с мастер-классами, на которых ребята с интересом и азартом погружались в мир каллиграфии, заворачивающих сюжетов картин Минхва, мастерили

открытки в вид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остюма ханбок, украшая традиционными узорами и смогли примерить костюм на себя.

А на кулинарном мастер-классе не только приготовили и попробовали чумокпаб, но и узнали об истории этого блюда и современном его исполнении. Мастер-класс «Секреты и традиции корейского чая», который стал уже популярным на раз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стал своеобразной точкой живого общения, среди ребят нашлось немало ценителей и настоящих гурманов чая.

На спортивной площадке колледжа царил дух сильных и благородных. Показ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и совместная разминка тхэквондистов понравились студентам не меньше кулинарных мастер-классов.



Спасибо за замечательные, теплые отзывы!

Впереди нас ждут новые совмест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усть наши новые совместные проекты станут такими же успешными!

Анжела Пе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 Токио скончался уроженец Сахалина - писатель Ли Хесон

Печальное событие произошло еще 5 числа начавшегося года. Отметим, что прозаик родился на Сахалине. В мире он прославился тем, что стал первым иностранцем, получившим престижную литературную награду в Японии — премию имени Рюносэ Акутагавы. Некролог опубликовало японское издание «Асахи Симбун». В издании сообщают, что смерть наступила в результате болезни пневмонией.

Ли Хёсон (кор. 이희성, 李恢成, I Hoeseong, I Hoesöng) — японский писа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Японизированное чтение имени — Ри Кайсэй (в литературе часто используется наряду с Ли Хёсон). Родился 26 февраля 1935 года на острове Сахалине, бывшем на тот момент частью Японской империи. В 1945 году после капитуляции Японии во всеобщей послевоенной неразберихе, по ошибке оказавшись принятым за японца, вместе с другими членами семьи был отправлен в Японию. Планы о возвращении в Корею остались по ряду причин неосуществленными и семья поселилась в Саппоро. Старшая сестра, оставшаяся от семьи по пути в Японию, осталась на Сахалине. Психологическая травма, полученная в результате этого и других событий тех

лет, впоследствии стала неизбывным мотивом литератур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писателя.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средней школы в Саппоро, Ли поступил на отделение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филологического факультета университета Васэда. В университетские годы принимал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протестном движении студентов-иностранцев. Первое время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университета пытался писать на корейском, однако уже вскоре в своих произведениях полностью перешёл на японский язык. Работал корреспондентом в газете Ассоциац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в Японии. В 1960-х годах, несколько отделившись от деятельности Ассоциации, дебютировал как писатель. Первое значительное сочинение — рассказ «Прошлой ночью» (その前夜, 1963). В 1969 году был удостоен премии журнала «Гундзо» для начинающих писателей за новеллу «Снова по той же дороге» (またふたたびの道). В 1972 году за рассказ «Прачка» (結をうつ女), посвященный памяти рано ушедшей из жизни матери, был награжден премией Акутагавы, став первым в её истории лауреатом-корейцем. В этом произведении писатель создал форму-гибрид подчеркнута одномерного японского

сисёсэцу и корейского ритуального плача, отсылающего в свою очередь к устной традиции корейских сказаний и шаманизму.

В 1970 году инкогнито впервые после войны посетил Южную Корею. Второй визит состоялся в 1972 году уже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премии Акутагавы. Впоследствии, однако, Ли, сохранявшему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неоднократно отказывали в выдаче визы вплоть до ноября 1995 года. Только после прихода к власти Ким Дэ Чжуна, провозгласившего курс на сглаживание отношений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Ли смог получить южнокоре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В 1976—1980 годы был написан роман «Несбывшаяся мечта» (見果てぬ夢, в 5 тт.), амбициозное произведение, попытка осмысления возможных альтернатив доктрине чучхе. После «Несбывшейся мечты» наступил почти десятилетний период молчания (при этом Ли, однако, плодотворно работал как публицист), за время которого Ли через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столкновения с другими культурами пережил существенный мировоззренческий сдвиг, придя к осознанию многозначности собствен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далеко выходящей за рамки просто японского корейц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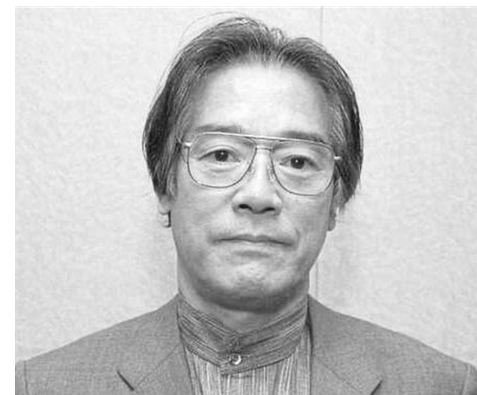


Фото: «Асахи Симбун»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начиная с 2000 года, писатель работал над многогранным романом-эпопеей «Жизнь на земле» (地上生活者), главным произведением своей жизни. В основе своей роман подчеркнута автобиографичен, однако при этом носит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характер масштабной притчи, нежели сисёсэцу.

От редакции: Ли Хе Сон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иезжал на Сахалин, об этом писали журналисты газеты. О его творчестве на страницах газеты рассказывала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профессор СахГУ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остоялась траурная церемония в память о жертвах авиакатастрофы Jeju Air

Министерство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провело совместную траурную церемонию в память жертв катастрофы пассажирского самолета авиакомпании Jeju Air. Траурная церемония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аэропорте Муан 18-го января, спустя 20 дней после катастрофы, произошедшей 29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 церемон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о около 1 тыс. 500 человек, включая 700 членов семей погибших, членов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ест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Траурная церемония началась с шаманского ритуала "ситкимгут" острова Чиндо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Намдо, символизирующего очищение души покойника и ее проводы в потусторонний мир. Затем, после минуты молчания, состоялось возложение цветов и благовоний в честь душ усопших. Выступая на церемонии,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емей погибших Пак Хан Шин сказал, что для них время остановилось навсегда.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для облегчения души погибших, причины катастрофы должны быть честно раскрыты.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Чхве Сан Мок, спикер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У Вон Сик и лидеры правящей и оппозиционных партий, присутствовавшие на траурной церемонии, пообещали раскрыть правду и не допустить повторения страшной трагедии. Министерство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планирует создать «Группу поддержки жертв крушения пассажирского самолета Jeju Air 12.29» 20-го января и продолжить работу по оказанию поддержки жертвам катастрофы и семьям погибших. Тем временем,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ъявили о продлении периода закрытия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эропорта Муан до 18 апреля для принятия соответственных мер, связанных с катастрофой пассажирского самолета авиакомпании Jeju Air.

Принята поправка к закону о назнач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го прокурора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прошедшем 17 января, была принята поправка к закону о специальном расследовании мятежа, инициированному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ей. В поправке были исключены пункты расследования валютных операций и другие аспекты. В этот же день, установленны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ей как крайний срок для переговоров между ведущими политическими силам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неожиданно представила измененный законопроект о назнач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го прокурора.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голосования, при 274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188 проголосовали "за", а 86 "против", причем из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только депутат Ан Чхоль Су проголосовал "за". В измененной версии закона исключены пункты о подстрекательстве к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измене и пропаганде мятежа, удаление которых из первоначального законопроекта, представленного шестью оппозиционными партиями, требовала партия "Сила народа". Число объектов специального ра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курора было сокращено с 11 до 6, однако сохранилось право расследовать связанные с ними дела. Партия Сила народа возразила, что антиконституционные положения все еще остаются и что проблематичным является формулировка "право расследовать связанные дела". Она подвергла критике оппозиционную партию за форсированное принятие закона, утверждая, что данное положение позволяет неограниченно расширять объекты расследования. Лидер парламентской фракци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Пак Чхан Дэ заявил, что требования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полностью приняты и считает, что нет оснований для отказа. Ожидается, что ключевым моментом станет то, как и.о. президента Чхве Сан Мок, подчеркивающий важность согласия между правящей и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ями, оценит процесс принятия закона о назнач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го прокурора.

Более 1 млн граждан РК встретят Соллаль за границей

По данным Корпорации Инчхо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эропорта и Корейской корпорации аэропортов, в течение десяти дней праздника Соллаль,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 340 295 человек вылетят за границу через шесть международных аэропортов РК. С 24 января по 2 февраля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рейсами воспользуются 1 046 647 человек через аэропорт Инчхон и 293 648 человек через аэропорты Кимпхо, Кимхэ, Чечжу, Чхонджу и Тэгу, где Корейская корпорация аэропортов осуществляет международные рейсы.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пассажиров (153 тыс. человек) покинет страну 25 января. А в день Лунного нового года, 29 января, в путешествия за границу отправится наимен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пассажиров (115 тыс. человек). В ответ на рост спроса на авиаперелеты в период празднования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министерство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увеличит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рейсов на 7%, а количество предоставленных мест - на 5,8%. RKI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назвал введенное им во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лишь "формальностью"

Третья попытка следователей Управления расследования преступлений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УРПВД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опросить находящегося в камере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Юн Сок Ёля закончилась неудачей. В среду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вновь отказался общаться со следователями, однако днем ранее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заседании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суда, где назвал оправданным свое решение с 3 на 4 декабря 2024 г. ввести во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По версии Юна, заявление о введении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было лишь "формальностью", а он на самом деле не собирался действовать в полную меру, с мобилизацией войск.

В среду 22 январ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Управления расследования преступлений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УРПВДЛ) предприняли очередную попытку допросить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н Сок Ёля, который, согласно решению суда, заключен под стражу в связи с подозрениями по поводу попытки мятежа и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й полномочиями при введении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Следователи явились при этом лично в пригород Сеула Ыван, где находится следственный изолятор столицы. Однако все закончилось так же, как и предыдущие попытки: президент через своих адвокатов передал, что он уже "все сказал следователям" и не намерен с ними общаться. Сотрудники УРПВДЛ заявляли, что намерены "силой обеспечить" явку Юна на допрос, тем не менее этого не произошло. После нескольких часов ожидания в изоляторе следователи вернулись в свои офисы. Глава УРПВДЛ О Дон Ун выразил сожаление в связи с подобным поведением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Таким образом, Юн Сок Ёль был на допросе лишь однажды - 15 января, в тот же день, когд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нескольких тысяч полицейских следователи смогли заставить Юна покинуть резиденцию и проследовать в следственный изолятор согласно выданному судом ордеру на задержание. Правда и тогда Юн ничего не сказал, отказался от видеофиксации процесса и не под-

писал протокол допроса. По версии президент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н все сказал, что хотел". Юн и его адвокаты считают свое задержание незаконным, как и действия следователей.

В отношении же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суда президент Юн избрал иную тактику. Во вторник 21 января состоялись слушания по делу об объявленном парламентом президенту импичменту за введение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На эти слушания Юн Сок Ёль прибыл и выступил лично. Судьям он защищал свое решение, назвав введение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законным, оправданным и частью процесс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 его версии, он вынужден был на это пойти в связи с подозрениями по поводу подтасовок на выборах, а также действий парламента, где доминирует оппозиция. Отметим, что слухи о подтасовках до сих пор никак не подтвердились, парламент же блокировал многие реш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но использовал для этого законные рычаги - большинство голосов.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Юн Сок Ёль введенное в начале декабря во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которое шокировало многих рядовых корейцев и удивило весь мир, он назвал "лишь формальностью", заверив, что не собирался его реализовывать и мобилизовывать в полной мере армию. Данные объяснения в интернете встретили саркастические комментарии с стилем - мол, сказал, что "ворвался в банк с оружием, положил всех на пол, но грабить не собирался - это была просто формальность, а не ограбление".

Ожидается, что следователи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желания президента участвовать в допросах намерены предъявить Юн Сок Ёлю обвинения. Считается, что он вступил в сговор с ныне уже бывшим министром обороны РК Ким Ён Хёном с целью организации мятежа и допустил при этом значительные злоупотребления полномочиями, которые ему положены как главе государства. Сам Юн Сок Ёль считает себя невиновным, а действия следователей и судей, выдавших ордер на его арест, незаконным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Высказывания Трампа о "ядерной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обеспокоили Сеул

В первый день своего второго срока президент США Дональд Трамп назвал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ядерной державой". Это заявление прозвучало в Овальном кабинете, где он подписывал свои первые указы, а затем пообщался с прессой. "Я был с ним в друже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Я ему понравился, он мне понравился... Они же восприняли это как огромную угрозу... Мы хорошо ладили. Он - ядерная держава. Думаю, он будет рад моему возвращению", - отметил Трамп, подразумевая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а.

Данные высказывания вызвали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в Сеуле, где с нескрываемой напряженностью следят за тем, что будет делать Дональд Трамп и как будет поступать в отнош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ведущие местные издания и телеканалы передали в качестве главной новости со словами Трампа о КНДР как о ядерной державе.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что президент США Дональд Трамп впервые публично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л КНДР как "ядерную державу" (nuclear power). Вместе с тем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что этот термин отличается от официального статуса "государства с ядерным оружием" (nuclear-weapon state), признанного Договором о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ДНЯО).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ранее похожую формулировку использовал и Пит Хегсет, кандидат на пост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США, заявивший 14 января на слушаниях в Сенате,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бладает ядерным потенциалом.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ока публично не комментировали заявление Трампа, но эксперты отмечают, что терминология Трампа и Хегсета н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ДНЯО. Южнокорейский эксперт Мин Чжон Хун из Дипакадемии при МИД РК отметил: "Использование термина "nuclear power" скорее описывает наличие ядер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чем признание КНДР в качестве официальной ядерной державы. США вряд ли изменят свою основную позицию".

Местные аналитики также полагают, что Трамп может попытаться возобновить прямой диалог с Кимом, используя более мягкую риторику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внимания Пхеньяна. Трамп уже проводил три встречи с лидером КНДР, начиная с саммита в Сингапуре в 2018 году. Вторая встреча в Ханое завершилась безрезультатно, но Трамп продолжал поддерживать контакт через обмен письмами.

Многи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эксперты считают, что Трамп готов рассмотреть не только полную денуклеаризацию, но и соглашения о сокращении или замораживании ядерного арсенала КНДР. Другие указывают на риски для безопасности Южной Кореи, которая останется под угрозо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кет.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рофессор Им Ыль Чуль из Университета Кённам заявил: "Ким Чен Ын, вероятно, воспримет слова Трампа положительно, но в то же время потребует от США конкретных действий, таких как прекращение совместных учений с Южной Кореей".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Мировой рейтинг военной мощи

Сеул, 19 января — ИА РУСКОР.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заняла 34-е место в мире по военной мощи, а Южная Корея — пятое, согласно глобальному индексу военной мощи. Эти цифры были опубликованы в рейтинге военной мощи 2025 года, составленном Global Firepower (GFP), который оценивает «потенциальную способность к ведению войны» 145 стран с помощью обычных средств. Рейтинг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2025 году на две позиции вы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и соответствует ее позиции в рейтинге 2023 года. В различных категориях оценки, включая численность парка боевых танков, численность личного состава действующей армии, численность самоходной артиллерии и реактивных систем залпового огн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заняла четвертое место в мире. Она также получила высшую оценку

«отлично»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истребительного флота, численности подводного флота и в других областях. Согласно отчету, численность личного состава армии и военно-воздушных сил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доступных для мобилизации, составляет 1,37 миллиона и 110 000 человек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что ставит их на шестое место в мире по этим показателям. Численность военно-морского флот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доступная для мобилизации, составила 60 000 человек, что является 12-м показателем в мире. В рейтинге Южная Корея заняла пятое место, а США — первое, за ними следуют Россия, Китай и Индия. Описывая Южную Корею, в докладе говорится: «Отмечены недавние политические потрясения в этой обычно стабильной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й державе».

Юрий Трутнев: Мы не должны забывать об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улуч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и северян

17-18 января в Москве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Юрий Трутнев провел выездное совещание по подведению итогов работы п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2024 году и приоритетным задачам на 2025 год («январские слушания»).

«Мы традиционно собираемся с главами регионов, руководством министерств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институтов развития, чтобы посмотреть, всё ли мы делаем правильно, всегда ли наша работа соответствует существующим вызовам и ситуации, в которой сегодня находится страна. Я прошу всех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никогда не забывать о том, что в наше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находятся задачи по улучшению качества жизни 10,5 млн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в Арктике. Работать в тот период времени, в который мы сейчас живём, надо не просто хорошо, а очень хорошо», – открыл совещание Юрий Трутнев.

Главы 11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доложили Заместителю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 полномочному представителю Президента в ДФО Юрию Трутневу о развитии территорий. Доклады прозвучали во время второго дня январских слушаний – выездного совещания по подведению итогов работы п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2024 году и приоритетным задачам на 2025 год.

«Сегодня у нас региональный день. Будем вместе с вами анализировать, как обстоят дела, что получается, на что следует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Мы прекрасно понимаем, что глава региона в мирное время и в ходе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 это разные роли. Ваша сегодняшняя работа содержит в себе новые вызовы, а иногда и угрозы. Но, ещё раз скажу, федеральные власти продолжают оказывать поддержку регионам», – открыл обсуждение Юрий Трутнев.

Вице-премьер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на ряд показателей по итогам прошедшего года. По темпам роста инвестиций в основной капитал в четвёрку регионов-лидеров в ДФО вошли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Сахалинская и Амурская области, Чукотка. По темпам роста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 округе лидируют Якутия,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Бурятия и Приморье.

Темпы роста ввода жилья в ДФО за прошлый год опережают среднероссийские. Рост составил 11,9%. В округе введено 4,7 млн кв. м жилья. Первые места по темпам роста заняли Приморье, Якутия, Бурятия, Амурская область. «Немалый вклад в этот процесс внесло реш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о продлен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ипоте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выделя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редства для сниж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нагрузки на банки в связи с эт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Сейчас идёт процесс уточнения по объёму средств.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опрос необходимо решить. Программ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ипотека»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Как и любое поруч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эта задача будет выполнена», – сказал Юрий Трутнев.

За 11 месяцев 2024 года второй раз в истори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миграционный прирост составил 14 тысяч человек. 8 из 11 регионов ДФ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положительное миграционное сальдо.

Востребованной сред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остаётся программа «Гектар»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земельного участка в безвозмездное пользование. Вице-премьер указал на недостаточные темпы подведения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к компактно расположенным группам участков, взятых по программе. «Это освоение наше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земли.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взял гектар, начинает заботиться о земельном участке, приступил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дома, останется жить на этой земле. А это один из желаемых результатов нашей работы», – заметил он и поручил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проанализировать ситуацию и доложить о принятых мерах по созданию и подведени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к поселениям 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гектарах».

Как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2024 году объём ВРП, по оценке, составил 1,8 трлн рублей. Зафиксирован рост в об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116%), угольной отрасли (113%), торговле (112%), строительстве (105%). В нацрейтинге состоя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ходится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в ДФО и на четвёртом в стран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означил ряд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для региона проектов: начало реконструкции гидротехнических сооружений Корсаковского порта, запуск двух заводов по глубокой переработке рыбы и завода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рыбной муки и жира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парка и первой очереди Сахалинского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Введены в эксплуатацию Центр вод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Волна», школы и детсады,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центр «Сахалинтех Алайд». Стартовала программа подготовки кадров для IT-отрасли «Школа 21». Открыты филиалы Театр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имени Бориса Щукина 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Начали работу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медкластер и Центр ядерной медицин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дана современная поликлиника, идё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ещё пяти поликлиник и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двух. Среди ключевых проектов на 2025 год – выход на проектную мощность 23-километрового

угольного конвейера, введение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второй очереди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западного объез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первой очереди логи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взлё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ы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планах – ввод 500 тыс. кв. м жилья и сдача студгородка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Отдельно на совещании обсуждались вопросы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социальных гарантий и льгот участникам СВО и членам их семей,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ых работ на освобождён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поддержки предприятий в рамках TOP «Патриотическая», а также подготовки к 80-летию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В завершение ещё раз повторю: от качества нашей общей работы зависит жизнь и благополучие 10,5 миллиона жителе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развитие этих огромных территорий. Надо с уважением относиться к доверию людей и доверию Президента», – подвёл итоги двухдневного обсуждения Юрий Трутнев.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и начали интенсивную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смену в «СахалинТех. Алайд»

С 20 по 30 января в региональном центре выявления, поддержки и развития способностей и талантов у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пройдет интенсив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Наука». 24 одиннадцатиклассника из Ко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получат углубленные знания по математике и физике.

На практических занятиях ребята проработают задачи,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подготовку к сдаче еди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экзамена, а также погрузятся в направление «Водородная энергетика и инженерия» и посетят водородный полигон СКБ САМИ.

–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новой смены-интенсива для будущих абитуриентов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разработана по предложению нашего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Игоревича Лимаренко и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продвинутую математику и физику,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 Мы синхронизировали программу с таки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подготовки, как водородная энергетика, техносферн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химическая технология, и предусмотрели в контрольных цифрах приема в университет 90 бюджетных мест на эти программы.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смены станут Андрей Горбунов, руководитель АНО «Восточный водородный кластер», а такж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алентина Матвеева, доцент кафедры математики; Наталья Самсикова, заведующая кафедрой математики; Марина Смирнова, доцент кафедры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и физики; Иван Игоревич Соловьев, старши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специалист проектного офиса.

Смена проводится с профориентационной целью, чтобы помочь будущим абитуриентам определиться с подходящей профессией, учитывая интересы и способности школьников. С ребятами проведут карьерн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тренинги с психологом. Также запланированы экскурсии на учебные площадки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 встреча с ректором. Школьники также ждут занятия йогой и хореографией, выездные экскурсии в музей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и н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В селе Отрада на Кунашире открылся участок врача общей практики

В селе Отрада в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е открылся новый медицинский объект – участок врача общей практики. В населенном пункте проживают 545 человек, ранее все они обращались за врачебной помощью в соседние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Теперь у жителей есть свой медпункт, оборудованный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для получения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ой помощи при различных заболеваниях и состояниях.

Площадь нового медпункта составляет 394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а. Здесь созданы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врачебных приемов и различ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процедур. На решение открыть здесь участок врача общей практики повлиял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расположение 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 наличии специалиста, обладающего широкими компетенциями в вопросах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 Специалист общей практики может осуществлять прием пациентов любой возрастной категории, обладает широким спектром навыков по узким специализациям – от хирургии до дерматологии.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пациент может получить комплексную оценку своего здоровья. Наличие такого широкопрофильного специалиста актуально для удаленных мало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 рассказала исполняющая обязанности главного врача Южно-Курильской ЦРБ Ольга Соломко.

В первое врем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населению будет оказывать специалист Южно-Курильской ЦРБ. Но уже в начале февраля на остров приедет врач из Центральной России. С ним достигнуты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и работе в селе.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столь отдаленного района для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повысилась благодаря действию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на 2016-2025 годы». В рамках ее реализации на Кунашире строится новое жилье. Так, в Отраде построен многоквартирный дом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бюджетной сферы. Одну из квартир займет врач общей практики.

–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приби-

ли работать 17 врачей, из них 7 – на Южные Курилы. Специалисты прибывают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они знакомятся с условиями. Несмотря на удаленность,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островов соответствуют всем современным требованиям, сюда поступает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ая аппаратура, специалисты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развиваться. Социальные гарантии – высок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поддержка в решении жилищного вопроса, в устройстве детей в сад и школу являю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стимулом при выборе жизни на островах,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едицинских объект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ведет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возвести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медпунктов – 11 ФАПов в разны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модернизации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цпроекта «Продолжительная и активная жизнь».

На Сахалине подвели промежуточные итоги кадровой программы для молодежи «Формула карьер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двели промежуточные итоги университетского проекта «Формула карьеры»,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т по двум направлениям – «Школа будущего студента» и «Академия карьеры».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и лично ознакомился с карьерными планами участников. Лучшие студенты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йти стажировку в ведущ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региона.

– Вопрос кадров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для успешн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этому мы применяем новые и наиболее эффективные подходы к формированию кадрового потенциала. Одним из них является карьерный план для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который разрабатывают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Формула карьеры» на базе СахГУ. Сегодня эта основная площадка, на которой мы выстраиваем лестницу карьеры для молодежи. Педагоги университета занимаются с одаренными ребятами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центре «Сахалинтех.Алайд», на базе университета мы создаем кампус «СахалинТех», где идет подготовка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приоритет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и страны. Следующая ступень – это практика 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Мы активно сотрудничаем с предприятиями региона,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студентам и выпускникам наше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доступ к практическому опыту и интересным вакансиям, – сказ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Проект «Формула карьеры» позволяет эффективно работать с кадровой политико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готовить специалистов с учетом потребности экономики региона уже со школьной скамьи. Так, для ребят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работа профильных школ, в частности по инженерно-техническому, нефтегазовому и IT направлениям.

– У нас прошли два трека – для студентов СахГУ и для учащихся 10-11 классов. В рамках организова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мы выяви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интересы ребят, помогли им сформировать траекторию обучения в интересующих их сферах, познакомили их с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С каждым мы строили карьерный план и проделали большую работу. Наши партнеры – Центр опережающе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одготовки,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Агентство развития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За 2024 год в проект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4 454 школьника и 2 327 студентов. Мы сделали 469 карьерных планов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и 704 – для студентов, организовали 41 мероприятие для них, привлекли 19 кадровых партнеров. Сейчас совместно с АРЧК на сайте «Навигатор карьеры» работаем уже над электронным карьерным планом, – рас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Центра карьеры и корпоратив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ФГБОУ ВО СахГУ Диана Афанасьева.

По завершению проекта каждый участник составил свой карьерный план. Спикерами на тематических тренингах, лекциях и мастер-классах выступили руководители и специалисты ведущих компаний в области. По итогам обучения студенты получили предложения по стажировке: к примеру, старшекурсница Дарья Голубкова получила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ступить к работе в «Сахалинтех.Алайд» в качестве преподавателя, где она продолжит развивать свои креативные навыки.

– Мы составляли карьерный план, где обозначили наши краткосрочные и долгосрочные цели. Моя главная задача – стать экспертом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По окончании обучения мне предложили пройти стажировку по моему профилю, чему я очень рада. В нашей области много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развития, в том числе образования, и я намерена строить свою карьеру именно здесь. Проект «Формула карьеры» – это отлич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явить себя, показать свои возможности. Это способ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и мечты, – поделилась участница проекта Дарья Голубкова.

Отметим, проект «Формула карьеры»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в 2025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увеличить охваты – в этом году участие в профориентацион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римут все студенты СахГУ.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재외동포청, 지역별 맞춤형 동포 정착지원 사업 최초 추진

2025년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12개 광역·기초단체 13개 사업 지원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2025년도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 보조사업자로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13개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금년도 지자체 보조사업 공모에는 13개 광역·기초 단체에서 16개 사업을 신청하였고, 이중 동포 밀집 지역인 광주광역시, 안산시 등을 포함한 12개 광역·기초 단체의 13개의 사업이 선정됐다.

금번 사업 선정에는 ▲실질적인 지원 효과 ▲사회적·정서적 적응 지원 여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식개선 ▲경제적 자립 역량 지원 여부 ▲지역별 형평성 등

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최근 국내 체류 동포가 약 86만 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외동포청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국내 체류 동포를 지원하는 것은 2023년 6월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처음이다.

금번 사업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과 지방 소멸 위기 상황에서 국내 체류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재외동포청이 발빠르게 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내로 귀환하는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 함께 우리 동포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

고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덕 청장은 "재외동포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금번 협업 사업 추진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국내 체류 동포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차원에서 1월 15일(수)-2월 7일(금) 기간 민간 단체 지원을 위한 '2025년 국내 체류 동포 관련 단체 지원사업'을 공모 중이며, 2월초에는 '국내 체류 동포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재외동포청, 인천대와 재외동포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17일 인천대서 MOU 체결... 취업 지원·채용분야 등도 상호협력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재외동포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국립 인천대학교(총장 박종태)와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1월 17일(금) 인천 송도에 있는 인천대 본관에서 이상덕 청장과 박종태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재외동포 대상 교육 또는 연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재외동포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재외동포 기업 채용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국내 거주 재외동포 대상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이 담겨있다.

이번 MOU에 따라 두 기관은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외동포를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취업 및 채용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과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덕 청장은 "이번 협약은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 강화와 차세대 동포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체결했으며, 동포청과 인천대학교가 재외동포분야 협력을 통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31개국서 온 차세대 동포 188명, '사할린 귀환동포' 찾아간 사연

'부산시 사할린영주귀국자회' 동포 어르신 만나 한민족의 정 나누 '2024 제8차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 참가차 방한

모국을 배우기 위해 방문한 재외동포 대학생들이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한 동포 어르신들을 만나 사할린 이주의 역사를 배우고 한민족의 정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재외동포청이 주최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주관하는 '2024 제8차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 참가차 31개국에서 온 188명의 재외동포 대학(원)생들은 1월16일 '부산시 사할린영주귀국자회' 어르신들과의 교류의 자리를 가졌다고 재외동포협력센터가 20일 밝혔다.

모국의 발전상을 체험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재외동포 대학생들은 동포 어르신들과 전통공예(석고방향제, 우리달 만들기) 및 전통악기를 함께 체험하면서 교류의 시간을 갖고, 선물로 목도리를 전달했다.

부산시 사할린영주귀국자회(회장 박철아)에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갔다가 영주 귀국한 어르신 143명이 소속돼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3세 허야나(24세)씨는 "이번 교류의 시간을 통해 사할린에

서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사를 처음 알게 되었고 한민족의 끈기와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러시아에서 온 박니콜라이(23세)씨는 "차세대 모국초청연수를 통해 모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우고, 한국에 계시는 사할린 어르신들은 물론, 전 세계 재외동포와 교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은 "이번 연수는 재외동포 차세대들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과 비전을 고민해보는 소중한 기회"라면서 "한인 정체성을 간직하고 거주국에 돌아가서도 모범적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수생들은 지난 14일부터 6박 7일간 ▲해양과 과학의 도시 부산 역사·문화 체험 ▲서울 역사문화 및 발전된 경제 현장 방문 ▲한복 페스티벌 등 한국의 예절 문화 체험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시민액션 프로젝트 수행 등 글로벌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20일 오전 그랜드 하얏트 인천호텔에서 폐회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한다.



31개국서 온 차세대 동포 188명이 '부산시 사할린영주귀국자회' 동포 어르신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재외동포협력센터]



한편, 재외동포 중고생이 참가한 제7차 연수는 지난 1월18일 31개국 252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폐회식에서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연수를 끝마쳤다.

(재외동포신문)

[우리말로 깨닫다]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의 미래



▲ 조현웅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재외동포청이 생기고,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기 바랍니다. 교포(僑胞)와 동포(同胞)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재외(在外)와 해외(海外)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재외동포 교육을 말하려니 우선 용어와 개념의 정리부터 필요하겠네요. 재외동포라는 말의 의미부터 한국어교육 시간에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

동포와 교포는 다릅니다. 일단 교포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동포지요. 따라서 교포는 밖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 나라에 정착하고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포의 교(僑)는 타관살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포가 개념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같은 동포라는 점을 강조해서 재외동포라고 하는 겁니다.

재외와 해외도 다릅니다. 해외라는 말에는 바다 밖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따라서 섬나라인 경우라면 당연히 해외 동포일 겁니다. 하지만 섬이 아니라면 재외가 맞습니다. 바다가 아니어도 가서 만날 수 있는 동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해외동포가 익숙한 것은 남북의 분단이 남한을 섬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건너지 않고는 가서 만날 수 있는 동포가 없습니다. 씁쓸한 현실입니다.

재외동포 한글학교 한국어교육의 관점도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재외동포라고 하여 지나치게 민족의 개념이 강조되어 왔고, 한국문화의 관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를 무대로 하고, 거주국의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 문화교육을 넘어서 상호 문화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족교육을 넘어 세계 시민교육으로 펼쳐나가야 합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이 즐거움 교육, 긍정 교육, 치유 교육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상호 문화교육은 편견을 사라지게 합니다. 지나친 자민족 중심주의를 벗어나게 합니다. 민족을 잊자는 말이 아닙니다. 민족을 넘어서는 인류애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한국 사회도 다민족 사회입니다. 민족 중심 교육에서 시민 중심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언어교육을 통해 사랑과 자비와 인을 배우고 평등하고 공정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체험하며 실천해 나갑니다.

한편 언어를 배우는 일은 설레기도 하지만 불안한 일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을 듣고,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을 읽어야 합니다. 낯선 이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생소한 주제로 쓰기도 해야 합니다. 떨리고 겁이 나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또 압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말입니다. 학생이 즐겁게 배울 수 있게, 다양한 활동도 하고 학생 간의 친밀도도 높이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학생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즐겁게 공부하는 교실이 이어야 합니다. 함께하기에 생각지도 못한 기쁨이 생기고 더 높은 창의력이 생깁니다. 내 속의 능력이 나를 넘어서게 됩니다. 설렘이 기쁜 한국어 교실이 되는 겁니다.

즐거움은 긍정으로 변합니다.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나온 길보다 조금이라도 나아가는 기쁨입니다. 새로운 어휘를 배우고 좋은 문장을 듣고 읽습니다. 옛글을 읽고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분노, 욕심, 어리석음, 폭력, 자만을 넘어서는 용서와 평화, 사랑의 세상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귀하고 사랑받을 존재임을 알게 합니다. 언어를 배우는 게 행복입니다. 언어를 배우는 게 철학적이고 종교입니다. 언어를 배우는 게 사랑입니다. 한국어 수업이 치유의 시간이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재외동포 교육이 민족을 넘어서는 세계 시민으로서 서로 나누고, 아끼고, 조화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한국어를 배워서 기쁘고, 같이 배우는 사람이 있어서 즐겁습니다. 한국어를 배웠더니 사람과 어울리는 게 좋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깊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어 수업이 행복과 치유의 시간이기 바랍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Спектакли двух сахалинских театров вошли в топ-300 "Золотого фонда России"

Союз театральных деятелей России опубликовал список спектаклей, которые поборются за победу в конкурсе "Золотой фонд театральных постановок России". Среди них — постановки Чехов-центра и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атра кукол, telegram-канал министр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региона Нонны Лаврик. Экспертное жюри,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го входили эксперты, рекомендованные региональными отделениями СТД РФ, рассмотрели записи всех спектаклей, отправленных на конкурс. Всего поступило около тысячи заявок от более 400 театров. По итогам первого этапа конкурса эксперты отобрали 300 постановок.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список претендентов на победу вошли спектак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атра кукол "Бешеные деньги" (16+) (режиссер Игорь Казаков) и спектакль Чехов-центра "Эшелон" (12+) (режиссер Евгений Зимин).

СТД РФ приурочил создание "Золотого фонда театральных постановок России" к своему 150-летию, которое будет широко отмечаться в 2026 году. В конкурс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коллективы из все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 от Калининграда до Камчатки — со спектаклями разных жанров. По условиям проекта, спектакли должны отражать традиционные духовно-нравственные ценности и формировать общеросси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код.

Жюри выберет 100 победителей в фонд "Золотого фонда театральных постановок России", после чего СТД РФ планирует создать телеверсии спектаклей.

국가두마, 국가기본시험으로 2개필수 과목만 시험을 치르도록 제안

2025년에 9학년을 마치고 성적증명서를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러시아어와 수학 과목의 시험만 치르도록 제안하는 법안을 국가두마에 상정해 해당 내용이 하원 정보사이트에 게시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9학년 졸업생은 중등교육 성적증명서를 받기 위해 4과목의 시험을 치러야 했다. 2과목은 필수과목인 러시아어와 수학이고, 2과목은 추가 선택과목이다.

새로운 법안의 발의자들은 성적증명서를 얻기 위한 필수 과목의 수를 4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여 필수과목만을 남길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5개 시범지역의 학생들이 러시아어와 수학 과목 시험만 치를 예정으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세웨르나야 오세티야-알라니아 공화국, 로스토브주, 튜멘주에서 시범으로 실시한다.

В Госдуме предложили сделать обязательной сдачу только двух предметов на ОГЭ

В Госдуму внесли законопроект, который предполагает, что для получения аттестата после девятого класса в 2025 году будет необходимо успешно сдать только экзамены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и математик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документ появился в электронной базе нижней палаты парламента.

Согласно действующему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выпускники девятых классов должны сдать экзамены по четырем предметам,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аттестат об основном общем образовании. Два обязательных предмета — русский язык и математика, два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 на выбор.

Авторы инициативы предлагают сократить количество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получения аттестата экзаменов с четырех до двух, оставив только обязательные предметы. Сдавать только русский язык и математику будут ученики в пяти пилотных регионах. Среди них — Москв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Республика Северная Осетия — Алания, Ростовская и Тюменская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주, 지난해 350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

이에 대한 정보를 сахалин 지역 경찰 홍보실이 전한 가운데 모든 외국인들이 입국 또는 러시아 연방 지역에 체류 규정을 위반 사실이 적발돼 행정위반에 대한 처벌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러시아에 돈을 벌기 위해 온 우즈베키스탄, 아제

르바이잔, 중국 국적의 국민이라고 추가로 전해졌다. 일부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전하며, 특히 1년간 сахалин주 오후 지역에서 10명의 범법자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거나, 도매-무역시장에서 잡부로 일하고 있었다. 그중 6명은 허가증이 없었고, 4명은 국내에서 자신의 체류 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

сахалин주 경찰국은 "오후 지역에서 발견된 불법 이민자들은 재판 결과 모두 벌금형을 받았고, 러시아 연방 지역에서 추방됐다. 이외에도 추방된 자들에게는 향후 5년간 러시아 영토 내에 입국이 금지된다."고 최종적으로 알리고, сахалин의 사업가들에게 업무 고용 시 외국인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В прошлом году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и выдворены 350 мигрантов-нелегалов

Такие данные сообщают в пресс-службе полиции по островному региону. Все иностранцы нарушали правила въезда или пребыван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Ф, за что также понесл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е наказание рублем.

«Это граждане Узбекистана, Азербайджана и Китая, прибывшие в Россию на заработки», — добавили в источнике.

О некоторых иностранцах рассказали подробнее. В частности, за год в Охинском район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и выявлены 10 нарушителей, они трудились на стройках и подсобными рабочими на оптово-торговых базах. У шестерых отсутствовали разрешите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а четверо не сообщили о своем месте пребывания в нашей стране.

«Все выявленные в Охе нелегалы были оштрафованы и принудительно, по решению суда, покинули территорию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роме того, им был запрещен въезд в страну на ближайшие пять лет», — подытожили в областной полиции, а также посоветовали сахалински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относиться внимательнее к изучению документов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при найме на работу.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Когда номер уже был подписан к печати, пришло очень печальное известие. 23 января 2025 г. поздно вечером не стало светлого мальчика Константина Цю из Холмска. Он умер на 20-м году жизни.

Болезнь пришла к нему в марте 2023 г., когда он учился в выпускном классе. Тогда многие сахалинцы участвовали в сборе денег, чтобы его прооперировали в Германии. Операция по удалению опухоли в мозгу была сделана вовремя. Была выявлена онкология. Наступило улучшение. Костя сдал выпускные ЕГЭ на отлично, летом 2024 г. поступил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медицин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Но в октябре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метастазы...

Он мечтал стать медиком, получить образование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хорошо владел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Был умным, талантливым, чутким и внимательным. Не раз был героем наших публикаций.

Светлая память...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носит глубокие искренн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Кости.

2025년 1월 23일 저녁에 홈스크 출신 주 콘스탄틴 극동의대 학생이 향년 20세를 일기로 сахали에서 중환으로 별세하였음을 부고하고 비애에 젖은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재능이 많고 한국어를 잘 하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한 주 콘스탄틴에 대한 기사는 여러번 본지에 실렸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15 руб.4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옥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